

터어키 여성의 지위*

—사회제도적 측면—

알리르자 발라만

지금까지 사회구조와 연관되어 수행된 대부분의 사회과학적 연구를 보면, 인구면에서는 남자의 수와 거의 맞먹는 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을 탈피하여 여성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켰다.

5천 7백만의 인구를 가진 터어키에는 농촌에 35,545개에 달하는 마을 단위가 있는데 이러한 농촌에 전체 인구의 41%, 즉 23,370,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인구 8백만의 이스탄불, 인구 3백만의 수도 앙카라, 그리고 인구 2백만의 이즈밀과 같은 대도시에는 도시 인구의 약 절반 가량이 소위 빈민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판자촌을 형성하여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도시 빈민지역의 인구와 농촌 인구를 합하면, 터어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촌에서의 전통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터어키 여성문제의 연구대상으로 농촌지역의 여성을 연구하는 것은, 터어키 전체 여성을 연구하는 것과 거의 동일할 뿐만 아니라 터어키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은 전통사회의 여성을 비중있게 다루었다. 실제로 시골 농촌여성들과 대도시 혹은 중소도시와 같이 발전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도시여성들 간에는 사회적 상황에서 볼 때 전혀 공통점이 없다.

육체적 노동에 의존하는 일터에서 남편과 함께 일하는 농촌의 여성들은 전통사회에서 고질적으로 형식화된 관습이나 전통 때문에 인간의 능력과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 채 아버지, 남편, 오빠, 아들들에게 예속되어 살아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성들은 수동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며, 사회활동이나 정치활동에의 참여도 극히 제한적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그 사회의 문화적 배경과 정치적 혹은 경제적 제도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모든 사회는 자기 다른 문화적 배경과 다양한 정치, 경제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내부 상황도 사회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다.

터어키 전통사회에서는 현존하는 사회제도의 계속적인 유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일관성있고 의미있는 모종의 규범들이 형성되어 있다. 남성들은 집, 밭, 천연자원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독점하고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며, 또한 이러한 권위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자기들과 성(性)이 다른 여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 경제 체제에서는 부당한 노동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족구성원 개인들의 경제적 독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위를 가진 자를 예우하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잠자코 있을 수 밖에 별 도리가 없다. 이러한 형태의 생활 환경에서는 “힘 있는 자가 옳다”는 논리가 지배한다. 힘 있는 남자가 지도자가 되며, 자신은 원하는 대로 돈을 사용하고,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

* 이 글은 교육부의 지역연구 지원사업에 따른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한 것임.

I. 들어가는 말

지금까지 사회구조와 연관되어 행해진 대부분의 사회과학적 연구를 보면, 인구면에서는 남자의 수와 거의 맞먹는 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점을 탈피하여 여성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켰다.

연구의 목적은 터어키와 한국 사이의 현재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인 관계를 발달시키며, 나아가서는 두 나라 사이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 5천 7백만의 인구를 가진 터어키에는 농촌에 35,545개에 달하는 마을 단위가 있는데 이러한 농촌에 전체 인구의 41%, 즉 23,370,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인구 8백만의 이스탄불, 인구 3백만의 수도 앙카라, 그리고 인구 2백만의 이즈밀과 같은 대도시에는 도시 인구의 약 절반 가량이 소위 빈민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판자촌을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도시 빈민지역의 인구나 농촌 인구를 합하면, 터어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촌에서의 전통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터어키 여성문제에 있어서의 연구대상으로 농촌지역의 여성을 연구하는 것은, 터어키 전체 여성을 연구하는 것과 거의 동일할 뿐만 아니라 터어키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라 여겨진다.

서방에서 프랑스 대혁명으로 1789년에 시작된 “언어, 종교, 계급과 상관없는 모든 인류의 평등과 자유”를 실현시키는 것은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요원한 일처럼 보인다. 특히, 이슬람 종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들, 예를들면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같은 나라들은 명백히 유엔의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들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정치적, 법률적,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유를 향유하고 있지도 않다. 이와 같이 이곳의 여성들이 평등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단순히 종교적인데 있는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아랍 사회에서는 이슬람 발생 이전 여성의 지위는 더 형편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적인 자료들은 9세기 튀르크인들이 이슬람화되기 이전에는 여성들의 위치가 남성들과 같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더 높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들면, 델히 튀르크공국의 라지에 술탄(Raziye Sultan), 쿠틀룩공국의 튀르크칸 하툰(Türkan Hatun)은 역사적으로 초기의 여성수장(首長)들이었다. 또한, 당시에 카스틸라(Kastila)의 대사의 회고록은 티무르(Timur)가 사마르칸트(Samarkant)에서 베푼 공식 만찬 자리에 남성들과 나란히 여성들이 좌정했음을 기록하고 있다.(K'='al', A., 1992). 오르곤 돌궐비문에 의하면, 고대 돌궐시대에 법적 효력을 갖는 법령들은 항상 카간(Kagan 왕)과 카툰(Katun 왕비)이 동시에 서명을 했으며, 만약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서명하지 않은 법령은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따라서 법령은 “카간과 카툰의 명이다”라는 문구로 매듭지어 졌다. 뿐만 아니라, 카간은 카툰, 즉 왕비가 없이는 외국 사절들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Inan R. 1991: 94).

이슬람화된 오스만제국 튀르크인들은 당시 노예 상태에 있던 비잔틴 사람들과 가까운 접촉을 갖게 되면서, ‘하렘 조직’을 그들로부터 배우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이란 사

람들과의 접촉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보았기 때문에 쉽게 이 제도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말동에 올라 앉아 남자들과 함께 초원을 달리던 여자들이 튀르크-오스만-비잔틴 문화가 조합(組合)된 이후에는 하렘의 여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칼리프 Caliph, 즉 전체 이슬람세계의 영적 지도자이기도 한 오스만제국의 황제 파디샤 Padisha들은 이슬람종교의 영향으로 때로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금지하는 법령을 공포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여자들은 상업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여자들은 주중의 몇 날은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등이 그것이다(Dogramaci E. 1992:121). 그러나, 이러한 법령들이 이스탄불이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활동은 크게 제한했던 반면 지방 농촌 여성들의 활동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시골의 터어키 여성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하였다. 농촌의 생산 노동력의 필요 때문에 집에 갇혀 있지 않게 된 시골 여성들은 자유스런 활동을 하였으며 생산 활동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제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오스만제국의 영토가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서 분할되고 있을 때(1914-1919), 아타튀르크를 지도자로 하여 아나톨리아 튀르크인(터어키인)들은 서방 제국주의자들에 대항하여 독립전쟁을 시작하였으며, 4년 동안 계속된 치열한 전쟁 끝에 1923년 10월 23일 터어키공화국을 설립하였다. 당시에 터어키인들은, 인구의 99%가 이슬람교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슬람법에 근거한 국가체제를 구축하기보다는 진정한 의미의 공화국을 세웠다. 따라서, 터어키는 공화국 정체를 가진 국가로서 헌법으로 여자들의 정치적, 사회적 평등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러한 평등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완전히’ 생활 속에 적용되지는 못했다.

위와 같은 몇가지 예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평등 혹은 불평등의 종류나 심도는 사회와 한 사회의 계급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 “이러한 차등은 선진국에서는 좀 더 적게, 후진국에서는 좀 더 많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보다 좁은 영역에서 나타난다. 자유와 평등의 면에서 성에 따른 차별성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비교적 쉽게 제거될 수 있지만, 독재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그리 쉽지 않다. 오늘날, 여러 모양의 국가 사회가 있지만 어느 국가 사회에서도 여자와 남자 사이의 불평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Tekelo S. 1982: 1191).

II. 전통적 경제 체제에서 여성의 지위

1. **일반론:** 전통적 경제 생활에서 인간과 자연은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기계가 발달하기 이전, 인력이 더 유용했던 전통적인 농업과 목축업에서 자연 조건에 대한 의존도는 대단히 컸다.

평원과 대농장에서 사탕수수, 목화, 연초 등을 주로 취급하던 시골에서는 자기 소유의 조그만 농경지에서 인력에 의존한 생산활동, 즉 “가족 농경법”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의 노동력에만 의존하는 가족 단위의 생산에서는 농업과 함께 목축업도

중요시 여겨졌다.

(표 1-1) 1990년도 터키 곡물및 공업 생산량

곡물 생산량	공업 생산량	목축
밀 : 2,000만톤	아편 : 4천5백7십톤	양 : 4,050만톤
보리 : 730만톤	대회향 : 9천5백톤	염소 : 1,000만톤
쌀 : 13만 8천톤	면화 : 58만7천톤	양고라: 100만톤
편두 : 84만 6천톤	사탕무우: 1,400만톤	소 : 1,100만톤
이집트콩: 86만톤	연초 : 30만톤	물소 : 40만톤

자료: 터키연감 1990, 앙카라

농촌의 경우 물공급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인공 비료가 사용되며, 물공급이 불가능한 산지나 관개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인공 비료 대신에 자연 비료가 사용된다.

터어키의 전통적인 농촌사회에서는 각 가정마다 상당한 양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데 터어키 전역의 양과 염소의 수는 터어키 인구에 맞먹는다.

농촌에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자기의 능력에 따라 농촌 경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어린아이들은 양이나 염소 새끼들에게 풀을 뜯게 하고, 노인들은 집안의 잔일을 하거나 손자들을 돌본다. 노동력이 있는 연령층은 반드시 생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자연 환경에 의존하여 경제성 있는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닌, 주로 자본 의존적인 경제활동이 행해지는 지역에서는 성별에 따른 분업이 이상적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여자들이 집안일에 전념하며, 남자들은 '집 밖의' 생산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Dogramaci, Sonmez E. 1972: 82).

이와 같이 개발도상국이나 공업화된 선진국에서는 경제활동 인구의 측면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적으며,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부문에 있어서도 여성들은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에 따라 인력채용정책이 다소 다른데, 어떤 나라에서는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반면, 어떤 나라에서는 여성을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농촌 지역과 같이 인력 공급이 항상 부족한 사회에서는 성별에 의한 분업이 강력한 사회규범으로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이 생산 활동에서 중요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집에서 주로 빵을 굽고 음식을 만들며,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하는 여성들은 이 외에도 부수적으로 행하는 쟁기질, 추수, 산에서 나무하는 일 등에 있어서도 남성들 못지 않다. 육체적인 힘에만 의존하는 이러한 일들은 기술 부족과 사회적 조건 때문에 늘 행해지고 있다. 한편, 어떤 때에는 필요에 따라서 여성들이 하는 일을 남성들이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부인이 딸과 함께 마을 밖의 과수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 자신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마을에 있는 남

편은 양젖을 짜고 끓이는 일을 한다. 마침 이 때에 집에 손님이 온다면,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함께 식사를 하며 차를 준비할 것이다. 농촌 지역에서는 분업(分業)이 아니라 협력(協力)이 행해지는 것이다 (Balaman, A. R. 1982b: 62).

터어키의 전통적인 농업 지역에서는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힘과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지만, 산업 부문이나 서비스업 부문에서 일하는 여성의 수는 매우 적다. 오늘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성들이 경제활동 영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여성이 노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스웨덴 62%, 미국 54%, 일본 47%, 이태리 32%등이다 (Nilay, S.와 Cekirge, P. 1992: 111). 터어키의 경우 여성이 공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 서비스업에서는 25.3%로서 총계 38.3%이다 (Inan, R. 1991: 167-168).

2.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여성의 일과

농촌 여성은 동이 뜨기 전에 기상한다. 맨 먼저 부엌에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아침식사를 위해 국을 준비하고, 발효하는 데 2시간 걸리는 하루분 빵을 반죽한다. 반죽한 것이 발효될 수 있도록 따뜻한 방구석에 놓아두고, 침실 바로 아래 층에 있는 마구간에 내려가서 양과 소의 젖을 짜낸다. 이 일을 할 때 양들의 머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아이들 중 하나를 깨운다. 곧 이어 마을 우물로 달려가서 맑고 신선한 식수를 양동기와 항아리에 가득 채워 온다. 다 끓은 국을 내려 놓고 소와 양으로부터 짜낸 우유를 끓인다. 다음에는 빵을 굽기 시작한다. 이 즈음 남편과 아이들을 깨운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신선한 빵과 따뜻한 국 등으로 아침식사를 하고 식탁을 치운다. 식사 후 침대를 접어서 벽쪽으로 옮겨 놓는데, 그러고 나면 남편은 점심 도시락을 지참하여 마을 건너편에 있는 농장에 가거나 혹은 산으로 나무하러 간다. 아이들을 불러 마구간에 있는 양들은 목동에게, 소들은 소몰이꾼에게 데려다 주게 하고 마구간을 소제한다. 분노를 짚더미와 섞어서 건조되도록 집의 외벽에 붙여서 겨울철 땀감으로 준비한다. 아침 설것이를 서둘러 마친 후에는 저녁 때쯤에 요구르트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발효시켜 끓인 우유의 윗기름을 건어내는데, 교유기를 흔들어 사용한다. 찬물과 혼합시킨 우유의 기름이 나올 때까지 교유기를 계속해서 흔든다. 기름이 나오면 이것을 기름통에 쏟고 넘쳐나는 기름기 없는 아이란은 다음에 기름기 없는 치즈를 만드는 데 쓰기 위해 통 속에 넣어 둔다. 또 닭과 병아리들에게 모이를 주고 저녁 때까지 동네 마을에 풀어 둔다. 사내아이들을 어린양들에게 풀을 뜯기도록 시키고, 자신은 딸 아이를 데리고 마을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채소밭에 물을 주러 가거나 채소를 따러 간다. 점심 때에 집에 돌아오는데 딸아이의 도움을 받아 집안을 청소하고 저녁식사 준비에 들어간다. 대개 점심은 간단히 때우지만 저녁식사는 음식을 풍성히 준비하여 온 식구가 함께 먹는다. 해질 무렵이 되면 소떼를 뒤따라 양떼가 돌아오기 시작한다.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돌아오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가축에 섞여 버린 소나 양을 찾아내어 집으로 데리고 온다. 이 즈음에 닭들에게 모이를 주고 우리 속에 넣어 둔다. 이제는 들판에서 힘겹게 일하고 돌아온 남편

의 수레를 정돈하는 일을 돕는다. 수레에서 짐들을 내리고 수레를 끈 소나 말을 마구간에 넣는다. 마구간에 있는 암소나 양들에게 여물을 주는데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 짓을 짜 시간이 지나기 전에 곧바로 끓여서 발효시킨다. 온식구가 함께 저녁식사를 먹은 후 설겅이를 한다. 아이들이 피곤하여 잠자리에 들기 시작하면 어머니는 곧바로 접어 두었던 침대를 펴고 아이들의 옷을 벗긴 후에 침대에 눕힌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입힐 옷의 떨어진 부분이나 헤진 부분을 꿰맨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집안 곳곳을 점검하고 마구간에 있는 가축 역시 한번 더 살핀 후에 기도와 함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든다. 깜짝 놀랄 소리는 아니지만 바로 침실아래의 마구간에서 출산을 기다리는 양의 가느다란 신음 소리에 깰 준비를 하면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어머니는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 해낸다. 아이들이 없는 집에서는 일이 늦고 힘겹게 끝난다(Balaman, A.R. 1984: 189-190).

Ⅲ. 전통적 생활 교육을 받은 터어키 여성상

터어키에서 7세에 시작하여 12세까지 계속되는 5년 과정 초등교육은 무료이며 의무 교육이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어떤 곳에서는 학생수의 부족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교통난 혹은 교사의 부족 때문에 학교 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불행하게 학교에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보게 된다. 한편, 농촌에서 읽고 쓸 줄 아는 남자의 비율이 80%인데 반해, 여성의 비율은 20%에 지나지 않는다. 터어키의 남동부 지역에서는 읽고 쓸 줄 아는 여성의 비율이 더 낮아서 10%로 떨어진다 (Inan, R. 1991: 144).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읽고 쓸 수 있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의무적인 군복무 2년 동안에 남성들은 읽고 쓰는 것을 배우기 때문이다. 군복무 기간 동안 많은 남성들은 읽고 쓰기를 배운 후에, 운전 기술, 자동차 정비, 요리 그리고 이와 유사한 기술들을 배우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농촌 여성들에게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거나 비교적 적다. 예를 들면, 산파원, 간호원,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적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구조의 저변에서 단순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여성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여성들이라 하겠다(Tayanc, F. ve T. 1981: 122).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을 활용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존심과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시민권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는 하지만,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 평등을 보장받기가 쉽지 않다.

터어키에서 1923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여학생 수는 6만 3천명으로서 당시 7백만 인구의 1.1%였는데, 1980년에는 이 숫자가 250만명에 이르렀고 4천 7백만 인구의 1.8%였다.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 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임에도 불구하고 1980년에 중학교의 여학생은 약 39만 3천명, 고등학교의 여학생은 약 19만명이었다. 같은 기

간에 대학교 혹은 대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의 수는 41,887명이었는데, 이 수는 남학생 125,961명에 비해서 전체의 약 30%밖에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고등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부모의 94.4%에 달하는 대부분은 공무원, 군장교, 사업가, 그리고 지주들이었다. 나머지 5.7%는 일반 노동자들의 자녀들이었는데, 이들의 85%는 남학생들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터어키에서 무상으로 행해지는 교육제도 때문에 특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관료나 유지의 자제들이다. 수백만명의 여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공부하지만, 극히 적은 수의 여학생들만이 고등교육을 받고 직업인이 된다. 1973년까지 터어키공화국 창립 후 50년 동안 터어키 전체 3,022명의 판사들 중에서 149명, 10,607명의 변호사들 중에서 1,592명, 266명의 공증인들 중에서 30명이 여성이었다. 1981-1982 교육년도에 대학교수 요원 16,272명 중에서 4,026명만이 여성이었다 (Altindal, A. 1991: 142-143).

터어키에서는 1930년에 여성들의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권이 입법화 되었으며, 1934년에는 여성의 국회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당시에 공화국 창립자이며 초대 대통령인 아타튀르크의 명으로 18명의 여성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는데, 52년 후인 1987년에는 그 숫자가 5명으로 줄었다.

IV. 전통적인 가정에서 여성의 지위

전통적인 농촌 가정의 가족간의 상호 관계와 영향력 행사는 대개 나이와 성별에 따라 특징지어진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의 사회화 과정은 농촌사회경제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내아이의 위치는 여자아이와 다르게 나타난다: “아들을 낳은 자는 칭찬하고, 계집아이를 낳은 자는 구박하라. 사내가 크면 영웅이 되지만, 여자가 크면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라는 속담도 남자와 여자의 이러한 차이를 잘 이야기해 준다. 생산활동에서 남자의 육체적 힘이 필요하고 가문의 대가 남자에 의해 이어진다는 관념이 여자아이를 무시하는 원인이 된다. 아이를 출산한 며느리가 집안일을 돕지 못하고 있을 때, 만일 아들을 낳았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딸을 낳았다면, 심중팔구 시어머니로부터 “사내아이 하나 낳지 못하면서 침대에서 꾸물거리고 있니?”라는 구박을 받고 당장 일을 시작해야 한다.

새로 태어난 아이는 가족의 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출산한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이외에 아이를 돌보는 일이 가족 전체 구성원의 책임이 된다.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나게 사랑할 수 없고 아이와 함께 놀 수도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버릇이 없다고 핀잔을 듣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어머니는 자기 아이와 놀아줄 시간도 없다. 일반적으로 아이를 보살피는 책임이 가족에게 주어지는데, 특히 바로 위의 언니가 주로 돌본다. 농촌에서 “나의 엄마는 언니다”라는 말이 위에서 말한 바를 잘 설명해준다. 그러나, 아이를 돌볼 언니나 할머니가 없는 가

정에서는 아기의 어머니가 애를 등에 업고 밭이나 과수원에서 일하며 가축을 돌본다. 이렇게 꿩이질과 낫질을 하는 어머니는 젖이 불면 일손을 멈추고 아기에게 젖을 준다. 그러나 열심히 일한 어머니는 테운 젖이 식을 때까지 기다린다. 왜냐하면 따뜻한 젖이 아이에게 해롭기 때문이다. 이 때에 자신도 잠시 쉴 기회를 가진다. 아기가 울 때마다 젖을 주지는 않는다. 아기가 많이 울면 폐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여 울게 내버려 두기도 한다.

농촌에서 결혼 적령기를 지났거나 혹은 나이가 든 여성들은 원한다면 남자들처럼 말을 탈 수도 있고 남들 앞에서 담배를 피울 수도 있다. 심지어는 남자들처럼 욕지거리를 할 수도 있다. 성년이 된 남자들은 가정에서 재산과 권위를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늘 상 중요시 여겨지며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는다.

유년기로부터 성년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사내아이들은 가정에서 자기 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들에게조차 명령을 할 수가 있다. 남자가 성년이 되면 막 성년이 되었을지라도 그의 길을 어머니 또래 나이의 여인들이 가로 질러 갈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운수를 막는 일’ 난 참조). 남자가 길을 갈 때 여자가 그의 앞을 가로질러 가면 운이 달아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자들은 여자들이 길을 가로지르지 못하게 한다. 남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이 여자들 위에 있음을 과시하는 것이다:

- (1) “머리 위에 쓴 흰 천이 피로 물들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그래야 여자를 때린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 (2) “아내의 눈에는 항상 눈물이 고이고 머리는 늘상 축축히 젖어 있게 해서 너 자신이 남자인 것을 알게 하라.”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아내를 구타하고 하루에 한 번씩 목욕하게 하라, 즉 성교를 해라).
- (3) “아내의 등에는 몽둥이를, 배에는 망아지를 늘 지니게 하라” (아내를 늘 때리고, 임신하여 애를 낳게 하라).
- (4) “여자가 지식이 많으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들이 똑똑하게 되지 못하게 하라, 즉 공부시키지 말라).
- (5) “여자는 머리는 길지만 머리통은 비어 있다” (남자가 더 똑똑하다).
- (6) “난로를 치우는 자” (여자는 종이다).
- (7) “숫가락의 원수” (여자는 밥만 많이 먹는다).
- (8) “완성되지 못한 치마” (여자는 미련하고 불쌍하다).
- (9) “수다쟁이” (여자들은 수다만 떠난다).

이와같은 속담들은 터어키의 전통적인 사회생활에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빗대어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속담들은 남자들로 하여금 함부로 여자들을 대하게 하는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한편 이러한 반여성적이고 부정적인 속담들에 반하여 여성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속담들도 간혹 나타난다:

“여자는 남자의 배우자요, 가정의 태양이다.”

“남자는 숫사자인데, 암사자로부터 힘을 얻는다.”

남자가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자기 아내를 높여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

기도 한다: (1) “인생의 동반자”, (2) “나의 황제”, (3) “내 사랑”, (4) “집 주인” (Balaman, A.R. 1982a: 18).

남성들은 세상 돌아가는 일을 남편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내의 생산활동에 대해서는 “세상은 4개의 손잡이가 달린 큰 술이라네. 두개는 당신이, 두개는 내가 잡고, 술이 쏟아지지 않게 하세”라고 말하면서 일하는 데는 성구별을 두지 않는다. 아내는 낫질하고, 잡초를 뽑으며, 양털을 깎고, 수레를 몰며, 쟁기질을 한다. 나무하러 산에 오르며, 공사에 필요한 돌과 진흙을 운반한다. 농촌의 전통적인 농가에서 일을 하는 데는 남자들이라고 해서 구분된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들도 양젖을 짜고 우유를 발효시켜 요구르트를 만들고 집안 청소를 한다.

농촌 지역의 전통적 농가는 대가족이다. 할머니, 할아버지에서 여러 형제들의 젊은 부부까지 몇쌍의 부부와 많은 자식들이 한 밭을 갈고, 한 지붕 아래에서 살면서 한 술 밥을 먹으며 지낸다. 단지, 한 지붕 밑에 여러 집이 있어서 각 쌍의 부부들은 자신들의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있다. 갓 결혼한 부부는 분가를 하기보다는 남편의 가정에서 시부모와 시동생들과 함께 사는 것을 이미 성장과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누구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누구의 말에 먼저 따라야 하는지, 누구 다음에 잠자리에 들어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는지 등을 익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새색시의 편에서 시아버지는 절대적인 권위의 상징이다. 그 다음으로 권위 있는 자는 남편의 형 혹은 동생이다. 나이가 자기보다 적은 시동생일지라도 예우를 해야 한다. 권위의 크고 작음에 따라 예우도 달라진다. 큰며느리와 작은며느리는 시어머니에 대해서 함께 뭉치지만, 시아버지에 대해서는 서로 먼저 점수를 따려고 한다. 가정에서 며느리의 위치는 자신의 나이보다 남편의 나이에 따른다. 예를 들면, 동생의 처가 형의 처보다 나이가 많을지라도, 형의 처에게 예우를 해야 한다.

한 가족 내의 위계질서가 생산활동 연령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무척 강하게 작용하지만, 생산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어린 아이들 사이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 할머니와 어린 손녀 사이의 관계는 아주 화목하고 부드럽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손자 손녀들이 함께 사랑스런 이야기를 나누며 새끼 염소에게 풀을 뜯기고, 지붕 위에 말리는 곡식들을 새들이 쪼지 못하게 지키면서 함께 웃고 소리치고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특히 할아버지와 손자—터어키에서 손자들은 대개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다—의 관계는 다른 어떤 가족 구성원 사이보다 더 친밀하다. 한 국제적인 연구서의 결론에 의하면, 이러한 형태의 관계는 아이들에게 부모와 또 다른 어른들에 대해 경의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의 말에 잘 순종하게는 하지만, 어린이들에게 독립심을 갖게 하고 자신감을 배양시키는 면에서는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Kagitcibasi, C. 1990: 42).

V. 농촌 지역 여성의 결혼

고대 튀르크인들은 결혼이라는 단어를 *ev* (집) 혹은 *bark* (성소(聖所))를 소유한다는 말로 표현했다. *Ev* (집)은 사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장소이다. 돌궐비문에 *Bark* (성소)는 기도가 행해지는 장소라는 뜻이다 (Ziya Gokalp'ten Sevinc, N. 1987: 67). 이것과 관련하여 고대 튀르크인들은 집을 성스럽게 여겼으며, 만일 외인이 허락없이 남의 집 문턱을 넘어서면 저주를 받는다고 믿었다. 이렇듯 집에 부여되는 특별한 가치는 결혼을 비길 데 없이 거룩한 것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결혼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불명예스러운 것이었으며, 결혼하지 못하는 자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비난을 받았다.

결혼을 대를 잇는다는 의미로 보든,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합법화과정으로 보든, 어린이를 돌보며 교육시킬 책임을 갖는다는 의미로 생각하든, 혹은 생산 단위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하든 어쨌든 결혼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과 맺는 일반적인 관계와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적합한 조건과 준비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준비하는 일은 자식들에 대한 책임을 지닌 부모들의 임무이다. 농촌 지역에서 결혼은 대개 결혼할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뒤뉘르스룩(*dünürcü lük*), 즉 결혼을 통한 두 집안 결속 관계 형성이라는 전통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양쪽 가문이 친척이 되기를 원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에 따른 결혼 양식이 결혼 당사자들의 동의를 전혀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농촌 지역에서는 -이슬람의 여성들은 얼굴을 가리는 천을 사용하는 전통이 있지만- 여자들이 천으로 얼굴을 가려 서로를 모르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 적령기의 젊은 이들은 서로를 잘 알게 된다. “우리 집의 신부가 되면 어머니의 며느리가 되고, 형수님과 동서지간이 되지요”라는 말들을 하면서 우회적으로 신랑측에서 먼저 신부측에 의사를 전달한다. 포도 따기, 포도주 만들기, 연초재배, 버찌 따기, 양고기 저미기 등 협동으로 행해지는 일터에서나 초여름 축제, 결혼, 모임과 같은 데서 어른들은 결혼 후보자를 충분히 살펴보고 검토할 기회를 갖는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 후에 구체적으로 청혼을 하게 된다. 결혼이 합의되면 약속식(約束式)을 하고 이어서 약혼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와 기간들을 통해서 서로를 가까이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신랑 신부 후보자는 서로 선물도 교환하게 된다. 신부 후보자는 자신이 만든 갖가지 색상의 손수건을 신랑 후보자에게 건네 주며, 신랑 후보자는 거울, 머리핀, 장식품 같은 선물을 신부 후보자에게 보낸다. 여자가 약혼자에게 손수건을 보내지 않는 것은 결혼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러한 풍습은 중국 신강성 우이구르 튀르크인들로부터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그리고 아나톨리아 터어키에 이르기까지 전체 튀르크인들 가운데 널리 퍼져 있다. 만일 딸이 약혼을 했을지라도 상대방과 결혼하기를 거부하면, 그의 부모는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다. 돈 많은 늙은이와의 결혼을 강요받게 되면 딸은 다음과 같은 시를 읊으면서 그의 뜻을 단호히 밝힌다: “어머님, 차리리 내 음식이 텅텅해지고, 목숨이 끊어진다해도, 젊은이와 결혼하지 저 늙은이와 결혼하지 않겠

어요.” 이렇게 되면 부모는 더 이상 딸에게 강요하지 못하게 된다. 결혼을 강요하는 것은 그 딸을 죽게 만드는 것이다.

“딸에 탄 신부의 길을 오직 사촌 오빠가 막을 수 있다”라는 말의 숨은 뜻은 친족 결혼이 상당히 많이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딸을 다른 곳으로 시집보낼 때는 아저씨로부터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한다. 터어키 농가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사촌간의 결혼은 이슬람화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삼촌의 아들과 딸이 이모의 아들과 딸과 결혼하며, 고모 아들과 외삼촌의 딸이, 그리고 외삼촌의 아들과 고모의 딸이 결혼할 수 있다. 또한, 친척간에 혹은 가까운 친지들 사이에서 어린 아이들을 약혼시키는 풍습이 있다. 이러한 결혼 풍습을 ‘요람 약혼’이라 부른다. 친족 결혼이나 요람 약혼등을 통한 결혼 이외에, 결혼하기를 원하는 남자가 시골 농가의 생활 환경에 편승해서 상대방을 정하고 청혼을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 누구와 결혼하기를 소원할 때, 이러한 뜻을 이사람 저사람에게 말함으로써 소문이 당사자에게 들리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여자측 아버지의 신발을 못질하여 땅에 박아 놓거나,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 나가거나, 이유 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축을 구타하거나, 맘에 드는 여자의 집 굴뚝 뚜껑을 들을 던져 깨뜨리거나 혹은 이슬람사원의 침탑에 올라가서 때 아닌 공중기도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결혼 의사를 밝히기도 한다. 이리하여, 아버지가 아침 일찍 일터에 가기 위해 신을 신을 때 신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옛날에 결혼하고 싶을 때 이러한 의향을 자기의 가족에게 어떻게 알렸었는지를 회상하고 아내를 불러 땅에 박힌 신발을 보여 주면서, “아들과 이야기해 보고 저녁 때 나에게 알려주게.” 하면서 일터로 간다. 어떤 때는 딸을 가진 집안의 굴뚝 뚜껑이 깨지거나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깬 남자를 알게 되면 남자의 집안 사람에게, “왜 당신의 아들이 우리 딸을 원하는데 데리러 오지 않지요?”라는 말을 당당히 하게 된다. 이러한 사건이 있는 후 남자쪽 어른들은 신부를 요청하기 위해서 여자측에 공식적으로 방문해야 한다.

사회적 전통에 따라 결혼 문제에서 남자측은 능동적이어야 하며, 여자측은 수동적이어야 한다. 원하는 쪽은 남자측이고, 응하는 쪽은 여자측이다. 따라서, 남자측에서 결혼 의사를 이런 저런 방법으로 이야기할 때에, 여자측에서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여자측에서는 이리다가 노처녀로 늙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신경질적으로 화를 내기도 한다. 이렇게 화를 내는 일은 관대하게 받아들여진다. 결혼 적령기가 지난 여자측은 중매장이를 이용하여 신랑감이 있는 집에 보내 결혼 의향을 묻기도 한다. 중매장이들은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는 읍, 면 단위의 마을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한다.

남자측은 받는 쪽이고 여자측은 주는 쪽이기 때문에 남자측이 여자측에 집요하게 달려드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 때에 여자측은 조금은 주저하는 듯한 응답을 하게 마련이다. “여자측은 아무래도 머뭇거리기 마련이다”라는 속담도 있듯이, 여자측은 신랑감이 맘에 들어 꽤히 승낙할 수 있을 때에도, “첫번에 승낙하더라”라는 말을 듣기 원치 않기 때문에 풍습에 따라 의도적으로 머뭇거리면서, 남자측을 애타게 한다; “잠시만 기다

리게, 내가 애엄마에게 딸의 생각이 어떤지 물어 보라 하겠네, 삼촌에게, 외삼촌에게, 이모에게, 고모에게, 그리고 이웃에게도 물어 봐야지”라고 말한다. 단 한번에 승낙한 아버지는 풍습도 모른다고 가족 친척 이웃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딸이 지겨운가 보지, 주저하지 않고 승낙하는 걸 보니”라는 편견을 듣게 된다.

전통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결혼 적령기는 여자는 15세, 남자는 18세이다. 남편을 잃은 과부는 가문의 비밀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유산이 집안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또는 고아가 된 어린 아이들을 위한답시고 외부의 낯선 사람과 재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동생이 아직 어린 나이 일지라도 시동생과 결혼을 시키며, 아내를 잃은 남편 역시 같은 이유로 나이가 어릴 지라도 처제와 결혼시킨다. 한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결혼자금을 준비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결혼 적령기가 지나가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터어키의 동부지방, 남동부지방, 그리고 중부지방과 같이 전통적인 시골 농가들이 많은 지역이 아닌 좀 더 근대화된 예게지방에서는 결혼 적령기가 여자는 18세, 남자는 군제대를 하는 21-22세이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결혼은 결혼식 전, 결혼식, 그리고 결혼식 후 3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결혼은 관습적인 형식에 따라 진행된다. 관습적이라는 말은 “가장 좋은 결혼 대상자는 잘 아는 사람이다”(즉, 친지나 친척 중에 있다)라는 인식에서 결혼이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 사회에서 결혼의 절반에 가까운 44%가 친족간에 이루어지고, 나머지도 대개 이웃 친지들 간에 이루어지는 사실을 보더라도 위에서 말한 관습적인 인식이 어느 정도 보편적인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다. 실제로 친족이나 친지, 이웃 이외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생활의 활동 범위와 비례한다. 예를 들면, 자전거가 발명되기 전에 이탈리아 북부 지방에서는 보통 600미터 거리 이내에서 결혼 대상자가 결정되었지만, 자전거가 생활화되면서 1600미터 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었었다 (Smith 1972: 233). 자동차나 음속의 비행기를 사용하는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거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친족 혹은 잘 아는 사람들과의 결혼이 더 선호될 때, 외지의 사람과의 결혼은 여러가지 이유로 제한을 받기 마련이다. 또한, 외지 사람과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다. 예를 들면, 외지에서 온 신부에 대해서, “자기 마을 사람과 왜 결혼하지 못했을까? 보나마나 문제가 있겠지.”라는 의혹을 받는다. 외지에서 온 사람이 좋은 관계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아무리 애쓴다 해도, 기본적으로 틀에 박혀있는 선입관과 이해관계의 전통적 틀을 변화시키기는 그리 쉽지 않다. “노처녀가 되는 여자의 죄는 사촌오빠의 죄다”라는 속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결혼 연령기가 지난 여자의 가장 좋은 결혼 상대는 사촌이다. 결혼 적령기에 있는 여자의 삼촌, 고모, 이모의 아들들이 많을 때는 그녀가 외부인과 결혼할 가능성이 그만큼 희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결혼할 나이에 있는 자식들을 가진 친척들이 그녀를 남에게 결혼시키도록 허락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외지의 사람과 결혼한 여자가 행복하지 못할 경우 그 원인을 결혼 적령기에 있는 친족의 아들들에게서 찾는 것 처럼, 외부에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남자 또한 “저 친구 형편 없구만”하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외지인과 결

혼한 사람은 결혼 적령기에 있는 친족들의 입장에서는 손실로 여겨진다. 따라서, 집안 사람들은 친족들 사이에 남자와 여자들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다.

터어키의 전통적인 결혼의 '결혼지참금' 문제는 전통적 경제체제와 연관되어 피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결혼하게 된 여자는 자신의 경제 활동 단위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신랑집 경제 단위에 일꾼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분명히 모종의 경제적인 보상을 치루어야 하는 일로서 결혼지참금 문제가 대두되게 하는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사건 2 참조).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결혼에 있어서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제한이 없는 곳은 없다(Guvenc 1972: 301). 그러나, 이러한 근친(近親)의 개념은 사회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한국이나 브리탄야 콜롬비아에 사는 인디안들 집단에서는 사촌간의 결혼 뿐만아니라 6촌간의 결혼조차 금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사촌 형제들 간에 친형제들처럼 호칭하며 서로를 대하도록 가르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성적인 관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킨다. 이렇듯 엄격한 제한이 있는가 하면, 고대 이집트나 페루와 같은 어떤 곳에서는 왕족들이 귀족들 가운데 적격한 배우자를 찾지 못하면 매우 가까운 사람들 끼리, 심지어는 형제들 끼리도 결혼하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다.

VI. 예외적인 결혼 방식들

1. 딱 맞아 떨어진(Taygeldi) 결혼

시골 농가에서는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습적이 아닌 결혼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해진다. 대표적인 예가 타이겔디(Taugeldi)결혼, 즉 딱 맞아 떨어진 결혼이다. 이것은 결혼 적령기에 있는 자녀를 가진 과부 혹은 홀아비와 결혼 적령기에 있는 자녀를 가진 또다른 홀아비 혹은 과부가 자기의 자녀들을 결혼시킨 후에 자신들도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형태의 결혼은 지참금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결혼을 성사시킨 요인은 상호간의 이해가 딱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류의 결혼에서는 자녀들이 먼저 결혼하므로 젊은 부부의 아이들이 노부부의 아이들보다 더 큼에도 불구하고 노부부의 자녀들에게 아저씨, 삼촌, 이모, 또는 고모라고 불러야 한다(그림 1 참조).

2. 형제들로 인한(Berder) 결혼

결혼 지참금이 문제가 되어 결혼하지 못한 두 남자 친구가 자기들의 여동생들을 서로에게 줌으로써 결혼을 성사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이럴 경우에 누구에게도 지불할 부

체를 갖지 않는다. 그리고 결혼 비용도 서로 반반씩 나눈다. 이러한 방법은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있어서 서로를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서 긍정적이다. 예를 들면, 한쪽 신부에게 행해지는 좋지 못한 행동이 다른 신부에게도 똑같이 행해질 것이므로 자기들의 여동생을 생각해서 신부들에게 잘 해주려고 노력하게 된다(그림 2 참조).

3. 동거생활을 통한(Oturakalma) 결혼

서로 사회적인 신분이 크게 차이가 나거나, 결혼지참금 문제로 결혼의 성사가 문제가 되고 있을 때, 또는 양가 부모가 모두 당사자들의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때 등, 결혼에 장애 요인이 있을 때에 신부가 밤에 옷가지 등 짐을 챙겨서 결혼할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다. 이러한 지경에 놓이면 남자측 집안에서 신부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신부측에서도 이를 못 본 채 허락할 수밖에 없다.

전통사회에서 젊은이들은 결혼 문제에 있어서 가족이 문제를 제기하면, 남자가 여자를 부모의 집에서 도망치게 하여 결혼을 성사시키는데, 이러한 방법은 “신부 피어내기”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오투라칼마(Oturakalma) 결혼은 이에 비해서 여자가 남자를 피어내는 결혼이라 할 수 있다.

4. 일부 다처제

터어키에서 건국초기에 입법화 된 민법에 따라서 일부다처제가 법으로 금지되었다. 그러나, 시골 농가에서는 그러한 적용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이러한 결혼이 법망을 피해서 간혹 발생한다. 법적으로 첫 번째 결혼은 허용되나 두 번째 결혼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두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이들을 본처에게서 난 아이처럼 출생신고를 한다. 즉, 주민 등록상 이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를 낳아 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본처가 된다. 터어키 전통사회에서 일부다처제는 혈통을 보존하려는 데 그 동기가 있다. 본처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본처는 남편이 후처를 맞아들이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고 또한 후처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지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당하고 친정으로 쫓겨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다처제는 반드시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인구의 99%가 이슬람교도인 터어키 사회에서의 결혼식으로는 농촌이나 도시 구별없이 종교예식과 공식적인 예식 두가지가 행해진다. 종교예식은 반드시 행하는데 비해, 공식적인 결혼 예식은 교통 문제나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가에서 종종 특별법을 만들어 공식적인 결혼 예식을 하고 결혼 신고를 소급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학교에 갈 나이의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이 때를 이용하여 공식적인 결혼식을 올린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딸을 가진 부모들은 딸을 결혼시킬 때 상대방에게 공식적인 결혼 예식을 조건으로 내세우기도 한다. 최근에는 터어키에

서 공식적인 결혼 예식 없이 결혼하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VII. 전통사회에 있어서 여성의 이혼문제

현대 기술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급자족 형태의 경제 활동을 하며, 전통적인 농업방식과 목축업에 의존하는 터어키의 전통사회에서는 생산 활동에 있어서 성별의 구별이 없이 육체적인 노동을 요구한다. 이러한 육체적 노동력의 필요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하는 농가 사람들을 단단히 결속시키는 요인이 된다. 가족 경제에 의존하는 사회에서 성별의 구별뿐만 아니라 나이의 구별 또한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즉, 모든 가족 구성원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하는 것이다. 생산 능력이 있는 성인층뿐만 아니라 생산 능력이 저조한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들까지도 생산활동에 여러 모양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염소들에게 풀을 뜯기고, 할머니는 채소밭을 돌보며, 아이들은 집에서 들판 일터로 음식을 나르고 마을 안에 돌아다니는 양을 찾는 등 모두들 힘이 닿는대로 열심히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집안에 가족수가 많으면 그 만큼 튼튼한 집이 된다. “나무는 그 나무의 잎이 무성함으로 인해서 칭송을 받는다”라는 속담은 식구가 적은 집안은 칭송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 된다. 이렇듯, 분명한 이유들로 인해서 성별이나 나이를 불문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원의 감소, 즉 이혼이나 분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전통사회의 결혼생활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현안 문제들로 인해서 감상적이거나 낭만적인 분위기에 젖어 있을 만한 환경이 못되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다툰다거나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혼문제가 제기되는 일은 거의 없다. 국가의 공식적인 결혼식이나 종교적인 결혼예식을 올렸다는 부담 때문에 그들이 이혼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공식적인 예식을 하는 것은 법이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행하는 형식적인 것이며, 종교적 예식 또한 종교 예식 없는 결혼을 통해 태어난 아기는 사생아가 된다는 종교적 규범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종교적 전통에 의하면,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서는 “나는 너와 세번에서 아홉번까지 이혼했다. 꺼져버려!”라는 말을 세 번 되풀이하면 된다. 이와같이 이혼이 손쉬움에도 불구하고 가족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혼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 규범이 이처럼 손쉬운 이혼방법을 제공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미가 없다.

전통사회에서 이혼의 가장 큰 요인은 불임이다. 많지는 않지만 불임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해결은 이혼을 하기보다는 대신에 다산한 경험이 있는 과부나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후처로 맞아들이는 편을 택한다. 후처는 대개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게 된다. 불임의 원인은 반드시 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임의 책임을 여자에게만 떠맡긴다. 남자들은 의사가 치료함으로써 불임증이 고쳐질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남편들은 아기를 낳지 못하

는 여자를 “너 혹시 노새가 아니냐?”라는 경멸적인 어조로 비난하는 말을 내뱉기도 한다.

근래에 와서 독일이나 프랑스 등 외국으로의 노동력 이동이 전통적 가정의 붕괴 원인이 되기도 하였지만, 법적인 이혼이 쉽게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다. 이혼하기를 원하는 남자는 법적인 이혼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또한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이혼 하지 못한다.

전통적 사회생활에서 오는 관습적 규범이 또한 이혼을 어렵게 한다. 예를 들면, 신부가 친정을 떠나기 전에 신랑집에 가져갈 모든 혼수감들에 대해서 이웃들과 손님들이 보는 앞에 펼쳐 놓고 이슬람 승려의 축복 기도 가운데 값을 매기게 된다. 이때 모든 사람은 부르는 값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마음대로 엄청나게 값을 정해서 그 값을 금시세로 환산하게 된다. 이리하여 만일 결혼 후에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경우, 친정집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정해진 값으로 결혼 혼수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된다.

어떤 결혼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이 불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면, 베르테르(Berder)결혼, 즉 두 친구가 자기의 여동생들을 서로에게 주는 형식의 결혼은 만일 한 쪽에서 이혼하겠다고 나오면, 이에 대해 다른 쪽에서도 이혼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자신의 여동생을 보호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도 쉽사리 이혼하겠다는 엄두를 내지 않는다. 타이겔디(Taygeldi)결혼 역시 그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쉽게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이러한 결혼의 이혼율은 거의 0%에 가깝다. 이 결혼 형태에서 보통은 시어머니가 딸의 친어머니이고, 시아버지 또한 딸의 의붓 아버지이다. 사위편에서 보면 장모가 의붓 어머니이고, 장인이 친아버지이다.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고 한술밥을 먹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공동체의 식이 강하다.

전통사회에서 과부 또는 홀아비가 되는 경우는 이혼에 의한 것보다는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것이 많다. 이슬람 종교에 의하면, 사람이 과부 또는 홀아비로 죽게 되면 저승에서 해를 입게 된다고 믿으며, 따라서 노인들은 종교적인 결혼 예식을 통해서 죽기 전에 짝을 구하기도 한다.

가족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 각자의 독립된 경제력이 없는 관계로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 역시 당사자의 결정보다는 가족 전체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것은 결혼 비용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큰 문제로 뒤따르기 때문에 이혼 문제가 쉽지 않다.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이혼도 쉽다.”라는 말을 종종하게 되는데, 이 말은 “왜 이혼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적절한 응답이 된다.

Ⅷ. 전통사회의 상속문제에 있어서 여성

터키공화국 건국 이후인 1926년에 입법화된 민법이 있기 전에는 상속문제는 이슬

람종교법에 따랐다. 이 법에 의해서 딸들은 아들들이 물려받은 상속분의 절반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터어키의 민법은 성별의 차등을 없애고, 사망한 부모의 부동산을 법에 따라 똑같이 분배하도록 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국가인 터어키의 전통사회에서는 이러한 법이 완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어떤 경우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옛날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도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생존할 당시에 재산을 처분한 것처럼 꾸민 다음에 처분된 재산을 남자 자식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조작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형식은 아나톨리아반도의 중부지방과 동부지방의 전통적인 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 개화파 법률가들은 이러한 것들이 사기임을 주장하고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또한 이러한 방법의 조작 때문에 아들들에게만 부모의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성운동단체들도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사회라 할지라도 도시에 있는 경우이거나 도시 사회의 형태가 크게 영향을 미친 가족인 경우에는 민법이 제대로 준수되는데, 특히 대도시에서 이러한 편법적 상속을 보기는 쉽지않다. 단지, 사위 집안이 부자라면 그의 동의를 얻어서 시집간 딸이 남자 형제들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재산을 물려주기도 한다. 그러나, 사위들이 자기 아내들의 상속권을 주장하며 법적인 투쟁을 할 경우에는 재산 상속에 있어서 탈법적 행태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같이 재산 상속문제로 사위들과 법정 투쟁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Ustun, G.: Prof. Dr. Ismet Sungurlubey'den).

IX. 결론

본 연구논문의 서두 부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터어키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터어키의 사회구조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여성을 사회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터어키에서 여성문제’라고 말할 때,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농촌의 여성에 대해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교수, 의사, 변호사, 판사, 공무원, 경찰 또는 군인 등의 신분층 가진 여성들에 대해 논한다면 그것은 터어키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전통사회의 여성에 대해서 비중있게 다루었다. 실제로 농촌여성들과 대도시 혹은 중소도시와 같이 발전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도시여성들 사이에는 사회적 상황에서 볼때 전혀 공통점이 없다 (Caporal, B. 1982: 682).

육체적 노동력에 의존하는 일터에서 남편과 함께 일하는 농촌의 여성들은 전통사회에서 고질적으로 형식화된 관습이나 전통 때문에 인간의 능력과 잠재력을 개발시킬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 채 아버지, 남편, 오빠, 아들들에게 예측되어 살아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성들은 수동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며, 사회 활동이나 정치 활동의 참여도 극히 제한적이다.

전통사회에서 추상적인 윤리에 대한 개념은 남자와 여자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다

르게 나타난다. 기혼 남자가 다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을 때, 이러한 행위가 법에 의하면 죄가 되지만, 사회 윤리적 관념으로는 그저 방탕한 행위에 불과하다.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부끄러워 하기 보다는 도리어 남에게 자랑의 구실로 삼는다. 똑같은 경우, 여자는 법적으로 죄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신성한 결혼을 모독한 것이며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크게 지탄을 받게 된다. 이슬람법에 의하면, 이러한 죄를 지은 여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그 사회의 문화적 배경과 정치적 혹은 경제적 제도와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회는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과 다양한 정치, 경제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내부 상황도 사회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인류는 국제 협약들을 통해서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 것이다(부록 1. 여성의 지위와 관계된 국제 협약들 참조).

전통사회에서는 현존하는 사회 제도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일관성있고 의미있는 모종의 규범들이 형성되어 있다. 남성들은 집, 밭, 천연자원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독점하고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며, 또한 이러한 권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과 성(性)이 다른 여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 경제 체제에서는 부단한 노동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족구성원 개인들의 경제적 독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위를 가진 자를 예우하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잠자코 있을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이러한 형태의 생활 환경에서는 “힘 있는 자가 옳다”는 논리가 지배한다. 힘 있는 자가 지도자가 되며, 자신은 원하는 대로 돈을 사용하고, 모든 결정권을 장악하며 음식도 가장 맛있는 것을 먹는다. 식탁에서도 가장 먼저 수저를 드는 사람은 힘을 가진 자이다. 만일 누군가 “당신이 사는 곳에는 여성 행정가나 정치가 혹은 지도자가 없나요?”라고 묻는다면, 그는 “말도 안되지요, 여자들은 그들의 아내(보필자)가 없잖아요”라는 대답을 듣게 될 것이다. 이런 투의 말은 그 사회 속에서 살지 않고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터키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두가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첫번째는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문명화된 도시 여성이고, 두번째는 모든 행동이 남성들과 사회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으며 독립적이지 못한 소도시와 농촌여성이다. 두 유형의 여성 사이에 있는 갭의 정도는 사회적 불안, 상호 이해 부족 그리고 사회문제의 정도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 즉 한가지 형태의 터키 여성이 있기 위해서는 경제에서 스포츠, 교육에서 예술에 이르기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국가 정책이 추진되는 길밖에 없다.

X. 사례들

사례 1: 운수 망치기

아나톨리아 반도의 중부, 동부 그리고 남동부 지역에, 그것도 이러한 지역의 시골 농가에 널리 퍼져있는 '운수 망치기'의 유래는 그 기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것이다.

어린이를 제외한 모든 젊은 소녀들이나 여성들은 정해진 하루 일과를 잘 이행하는 것 이외에, 삶이 요구하는 모종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길 혹은 운수 망치기와 관련된 규범은 이러한 여러 규칙들 가운데 하나이다.

어린이를 제외한 모든 소녀나 여성들은 길을 건너려고 할 때에 길을 걷고 있는 어떤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가 자기가 서 있는 곳을 지나갈 때까지 서서 기다려야 한다. 만일 기다리지 않고 길을 건너게 되면, 남자의 운수를 망치는 것이 되어 크게 지탄을 받게 된다. 이렇듯 엄격한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 여자들은 마을 남자들의 왕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일 한 남자가 자기 앞을 가로질러 가는 여자를 보게 되면, '오늘 운수 망쳤다'고 생각하여 그 날은 일터에도 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되돌아 온다. 이러한 경우에 만일 남자가 발을 매려 간다면, 황소에게 해가 미칠 것이고, 사냥을 하러 간다면 한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 올 것이며, 곡식을 파종한다면 흉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자기 길을 막고 건너간 여자를 비난한다. 이러한 것을 철썩같이 믿고 있는 그들에게 누군가 이러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아마 그들은 노발대발할 것이다. 그들은 수천 번 이런 일이 있었으며, 그 때마다 이것이 사실로 증명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만약 여자가 알든 모르든 한 남자의 길을 가로질러 갔다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서 그에 대한 벌도 크다. 이 잘못을 알아차린 여자는 부끄러워하며 도망하고 쥐구멍이라도 찾게 된다. 운수를 망친 남자는 그 여자에게 욕지거리를 하며, 때리고, 그 여자를 수치스럽게 할 수 있다. 만일 남자가 이런 일을 저지른 여자를 관대히 용서하고 봐준다면, 마을의 모든 남자들은 그 남자와 여자를 욕하며, 전통을 깬다고 비난한다. 남자가 잘못을 범한 여자를 때리지 못한다면, 그 여자 남편, 아버지, 오빠에게 그 여자를 고자질하여 비난하고, 이러한 사건이 그날 하루 동안 마을 안에 화제거리가 된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어떻게 구타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매우 조심한다.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한가지 좋은 방법이 있다. 특히 노인들은 등에 아이를 업고 손에 물건을 잔뜩 들고 가는 여자를 볼 때 지나가라는 손짓을 하는데, 이 때에 길을 가로 질러 갈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신호로 허락하는 노인들의 수는 많지는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자가 해야하는 중요한 일은 급히 걷지 않을 것, 어떤 일도 서두르지 않는 것, 길을 나설 때는 먼저 오른쪽 다음은 왼쪽을 눈여겨 보면서 남자들의 왕래를 잘 살피는 것 등이다. 만일 길을 건널 때 먼 곳에서 어린이 처럼 보이지 않는 남자나 남자들을 보면 등을 돌려 그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결론/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라는 속담으로부터 “운수 망치기”라는 관습이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형성되었는지를 말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것을 알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여러 사회의 문화를 가운데 이러한 종류의 관습이 있는지를 연구하게 되면 비슷한 경우를 다른 문화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폴리네시아 토착민들 사회에서는 생리중인 여성은 생리 기간 동안에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함께 지낼 수가 없다. 별도의 장소에서 식사하며, 잠자고, 일한다. 이 기간 동안에 이 여성은 타부시되어 누구의 접근도 허락되지 않는다. 이 기간 동안 엄격한 규범에 따라야 하는 여성들이 남성의 길을 가로지르는 것이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되면 남성의 운수를 망치는 격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이다 (Balaman, A. R. 1983: 91-92).

사례 2: 결혼 지참금

경제 생활을 전통적인 농업과 목축업에 의존하는 사회에서는 결혼에 있어서 결혼지참금 문제는 중요하다.

터키에서 사람들과 가축들은 “머리”라는 말로 세어진다. 예를 들면, “우리 식구는 일곱 머리이다”라는 말은 식구가 일곱명이라는 말이다. 가축들도 “열개 머리 소”, “백개 머리 양” 등으로 세어진다. 신분증의 명칭도 “머리 종이”였다. 같은 방법으로 결혼지참금이라는 말이 하나의 머리에 속한, 하나의 머리에 대한, 하나의 머리를 위한 혹은 하나의 머리의 댓가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리하여 결혼지참금이란 결혼할 여자의 조건을 보고 상대적으로 매겨진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의 상대성은 매우 중요하다. 가치가 상대적으로 매겨지지 않으면, 시집갈 처녀는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정해진 가격에 따라 팔린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다시 말해서 돈이 있다고 아무나 어떤 처녀를 마음대로 살 수는 없는 것이다. 결혼지참금이 한 사회의 관습으로서 받아들여지는 문화가 있다면,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특이한 문화구조 안에서 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형태의 경제체제에서 인간과 자연의 갈등은 매우 심각하다.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은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자연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한마디로 이러한 삶은 매우 힘들고 어렵기 마련이다. 자급자족의 경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일하는 인간은 자연과 직접적으로 싸워야 하며, 생산 활동 또한 형편과 능력에 따라 제한 받는다. 가족 경제 공동체의 구성원의 나이나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생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줄어들다는 것은 가족 경제 단위에 큰 손실을 주게 된다. 이러한 손실은 부자가 그의 재산의 일부를 잃는 경우와는 다르며, 좀더 정확한 비유를 들면 내개의 바퀴로 움직이는 수레가 그 바퀴 하나를 잃어버리는 격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기계의 힘 대신에 오로지 사람의 육체적인 힘에만 의존하는 시골의 전통 경제 사회에서는 전문성이나 성별에 따른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남성의 노동력이 어떠한 여성의

노동력도 동일하게 평가된다. 그리하여, 가족 구성원 중에서 한 사람이 빠져 나가서 다른 생산 단위, 즉 다른 가족에게 갈 경우에 받는 측과 주는 측 사이에 손실과 이득의 계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결혼지참금이란 바로 이 때문에 생긴 것이다.

결혼지참금 문제는 단지 터어키의 전통사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남아프리카 원주민 통갈라르(Thongalar)족에서는 결혼 지참금을 로볼라(lobola)라고 부른다. 이들 문화에서는 로볼라를 받은 여자가 도망갔다면 그리고 그 결혼지참금으로 여자의 남동생이 결혼했다면, 그 도망간 여자의 남동생의 부인을 결혼지참금을 지불한 남자, 즉 도망간 여자의 남편에게 주어야 한다. 게다가 만일 여자가 전혀 아이를 낳지 않고 사망했다면, 이 결혼은 무효가 된다. 남자측은 죽은 아내의 결혼하지 않은 여동생을 원할 수도 있고 결혼지참금을 다시 돌려 받을 수도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지참금이란 남자측에서 여자측 집안에 결혼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을 돈이나 물건 등의 재화로 보상해 주는 것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결혼지참금을 여자측에서 남자측에 주는 경우도 있다. 인도, 일본, 그리스에서는 남자가 여자집에 살게 되면, 결혼지참금은 여자측에서 남자측에 주게 된다. 결혼이 가족에 의해서 준비되는 일본 같은 경우 여자들이 들판에서 일을 해야 하는 농가에서는 남자가 여자측에 결혼지참금을 지불하고, 도시에서는 여자가 남자측에 지불한다.

터어키의 농촌지역에서 행해진 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 시골에서 결혼지참금을 지불하지 않고 결혼한 경우는 36.7%이다 (Timur 1973: 83). 이 범위에 드는 사람들로는 (a) 시골 산파원, 교사 같은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성들—이와같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시골 처녀들이 결혼할 경우 결혼 지참금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b) 베르데르(Berder)형태로 결혼을 하는 여자들—이와같은 결혼에서는 남자 친구들 사이에 여동생들을 서로에게 주는 방법으로 결혼한다. (c) 타이겔디(Taygeldi) 형태로 결혼한 여자들—이것은 과부의 자녀와 홀아비의 자녀가 결혼하고 자신들도 결혼하는 형태를 말한다. (d) 오투라칼마(Oturakalma) 형태로 결혼한 여자들—이 경우는 여자가 결혼지참금 문제로 자기의 아버지가 결혼에 문제를 야기시키자, 자기의 소지품을 가지고 몰래 남자 집으로 도망가서 동거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사회적 관습인 결혼지참금 문제가 좋지 않은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봉건적인 제도가 시행되는 사회에서는 결혼지참금이 상대방의 경제적 손실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위세를 나타내는 방편으로 이용된다. 예를 들면, 올해 어떤 지주의 아들이 다른 어떤 지주의 딸과 결혼할 때에, 1킬로 그램의 금에 해당하는 결혼지참금을 지불했을 경우에, 다음부터는 어느 누구도 그 지주에게 그 액수보다 더 적은 결혼 지참금을 줄 수 없게 된다. 봉건제도하에서는 결혼지참금이 이와 같이 부를 파시하는 상징이 되어서, 어떤 곳에서는 신부의 몸무게 만큼의 금을 결혼지참금으로 요구하는 터무니 없는 일도 있었다 (Balaman 1982a: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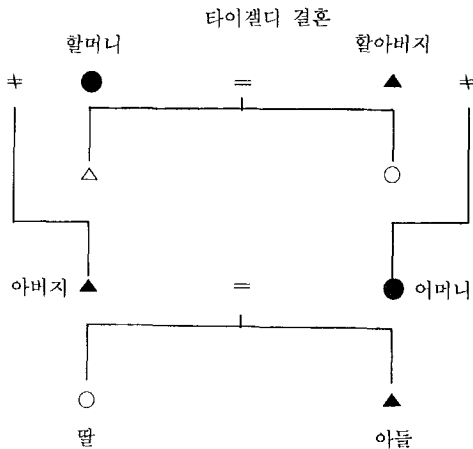
XI. 부록

(1)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국제협약들

1. 국제인권헌장(1948)
2. 인신매매와 매춘행위 금지를 위한 국제협약(1950)
3. 여성의 정치 참여권에 관한 국제협약(1952)
4. 노예제도, 노예매매 그리고 유사한 조직과 행위를 철폐하기 위한 국제협약(1956)
5. 기혼 여성의 국적에 관한 국제협약(1957)
6. 결혼의 인정, 최소 결혼연령 그리고 혼인신고에 관한협약(1962)
7.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66)
8. 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66)
9.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한 국제협약(1967)
10. 사회적 진보와 발전 헌장(1969)
11. 전쟁 상황에서 여성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1974)
12. 여성의 평등과 평화 유지를 위한 공헌에 관한 헌장(1951)
13. 국제노동기구의 동일한 직업에 대해서 남녀 구별없이 동일한 봉급 지급과 관련된 국제협약(1951)
14. 국제노동기구의 직장과 직업의 구별에 관한 국제협약(1958)
15. 유네스코의 차별교육 방지를 위한협약(1960)

(자료: Altindal, A. 1991: 197-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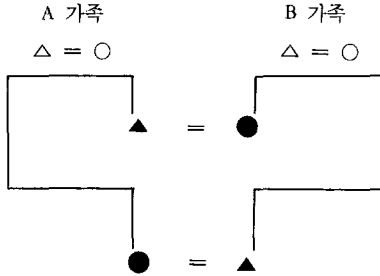
(2) <그림 1> 타이켈디 결혼



출처: (BALAMAN, A, R 1982-a:63)

(3) <그림 2> 베르데르 결혼

베르데르 결혼



출처: (BALAMAN, A, R 1982-a:59)

<참 고 문 헌>

ALTINDAL, B.

1991 "Türkiye'de Kad'n," İstanbul: Anahtari Kitapları.

BALAMAN, A.R.

1982-a *Evlilik ve Akrabalık Türleri*. İzmir: Kar nca Matbaası.

1982-b "Te-Ve Köyü Genel Etnografyası," İzmir: Ege Üniversitesi Sos. Bil. Fak. Der.,

1983 *Gelenekler, Töre ve Törenler*, İzmir: Betim Yayınları Halkbilimi Dizisi L.1984 *Kırsal Kesimde Aile... Türkiye'de Ailenin Değişimi*, Ankara: Türkiye Sos. Bil. Derneği Yayın.

CAPORAL, B.

1982 *Kemalizmde ve Sonrasında Türk Kadını*, Ankara: Türkiye İis Bankası Kültür Yayınları.

DOGRAMACI,S.,E.

1972 "Türk Romanında Aile Yapısı," Ankara: Sos. Bes. Bilm. Dergigi. Hact. Üni.

1992 *Türkiye'de Ka Dinin Düünü, Bugünü*. Ankara: Türkiye İis Banka Si Kültür Yayın: 31.

GÜVENC, B.

1972 *İnsan ve Kültür*. Ankara: Sos. Bil. Derneği Yayın:G-1.

İNAN, R.

1991 *Atatürk ve Türk Kadını*. İstanbul: Arkin Kitabevi.

KAGITCIBASI, C.

- 1990 *Insan-Ailêvê k]lt]r*. Istanbul: Remzi Kitabevi.
- KISLALI, A.
1992 "Kadinsiz Demokrasi," Istanbul: Cumhuriyet Gazetesi, 11 Ekim.
- MEYDAN LAROUSSE
1971 *Meydan Larousse Ansiklopedisi. "Kad'n" Maddesî Cilt: 5*. Istanbul: Iletisim Yayinlari.
- NIHAL,S,CEKIRGE,P.
1992 *Marjinal Kadınlar*. Istanbul: Alt'n Kitaplar Bas 'mevi.
- SEVINC, N.
1987 *Eski Türklerde Kad'n ve Aile*. Istanbul: Türk Dünyasi Arastirmalari Vakfi.
- SMITH, A.
1972 *Insan, Yapisi ve Yasami*. Istanbul: Remzi Kitabevi.
- TAYANC, F.T.
1981 *Dünya'da ve Türkiye'de Tarih Boyunca Kadın*. Ankara: Tan Yayin Ltd, Sti.
- TEKELI, S.
1982 "Kadin", *Cumhuriyet Dönemi Türkiye Ansikl, Cilt:5*. Istanbul: Iletisim Yayinlari.
- TIMUR, 3.
1972 *Türkiye'de Aile Yahisi*. Yayinlari:15, Ankara: Hacettepe Üni.
- ÜSTÜN, G.
1992 "Olaylar ve Görüşler", *Prof. Dr. Sungurlubey'den Cumhuriyet Gazetesi*. Istanbul: 22 Kasim.

Women's Status in Rural Area of Turkey

Ali Riza Balama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reate a better understanding and extend political, economical and cultural relationships between Korea and Turkey.

Theoretically in the world population the numbers of women are similar to those of men. But almost all the social researches show that women's problems have been ignored. So this article especially deals with women's status in Turkey.

The population of Turkey is 57 million. 41% of this population(23,370,000) have been living in rural areas. More than half of the population of Istanbul(8 millions), Ankara (3 millions) and Izmir(2 millions) have been living extremely poor lives in shack houses in slum areas. If the population of the rural areas is added to that of the slum areas

it makes much more than half of the general population of Turkey. That is to say, if we are talking about the status of Turkish women, first of all we have to be concerned with the women in rural areas. To know the real aspect of Turkish women, it's necessary to investigate women of rural areas than those of modernized urban areas. In fact, there are no similarities between them.

We can say that the women's status have two faces in Turkey. Women living in urban areas generally have a modern life style like the European women but Every action of women living in rural areas is firstly under the control of men, and secondly of their own small community.

알리르자 발라만, 한국외국어대학교 객원교수

주소 : (130-080)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Tel:(02)961-2381(O), (02)924-7432(H)